

“종립 영석고 지역 명문 키워가길”

자승 스님, 영석고 자비나눔 방문... 장학금 전달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자비나눔 방문으로 조계종립 영석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임직원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4월 13일 의정부 동국대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날 방문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의정부사암연합회장 호산 스님 등도 함께했다.

이날 자비나눔 방문은 학교 설립자인 안재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을 치하하고, 학교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도 이뤄

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영석고 재학생 20명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학교를 설립해서 공심을 갖고 동국대에 기증해주셨다”면서 “설립자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겨 임직원 모두가 동국대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영석고등학교를 지역 제일의 명문고등학교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재란 전 영석학원 이사장은 “내 생애를 바쳐 이룬 학교를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했다”며 “앞으로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도 진지한 불교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자비나눔 방문으로 조계종립 영석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위·진흥원 입장 차 ‘평행선’ 확인

조계종 중앙종회, 14일 진흥원 방문... 이사장 만남 불발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념, 이하 진흥원 특위)’가 대한불교진흥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일정 관계로 만나지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대한불교진흥원을 방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진흥원 특위 정념, 진화, 자공, 범일 스님은 4월 14일 서울 다보빌딩 15층 대한불교진흥원을 방문했다. 진흥원 측에서는 신진욱 기획총괄실장과 고영인 불교와문화 편집위원이 배석했다.

이날 특위 스님들은 진흥원이 종단 관점에서 봤을 때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관과 재정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 정념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흥원과 소통을 추진하는 것은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제대로 이어가자는 데 있다”면서 “특위가 진흥원 이사 정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 계승이 제대로 이어져 진흥원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석한 신진욱 기획총괄실장은 “지금까지 종단에서 정관과 재정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면서 “진흥원은 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 스님들은 이사장과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정념 스님은 매주 진흥원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진흥원 측은 실무 협의 입장을 고수했다. 신 실장은 “비공식적으로 불교 진흥을 위한 사업 논의는 가능하다”면서 “특위의 회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양측 실무자 간 접촉과 대화가 우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승소... 해결 실마리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승소... 해결 실마리

법원, 14일 “영담 스님 직무대행 자격없다” 판결

동국대 이사장 직무집행을 두고 진행된 가처분 소송 결과 일면 스님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4월 14일 일면 스님과 영담 스님 간 이사장 권한 분쟁 관련 가처분에서 일면 스님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권 스님과 영담 스님이 일면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 가처분에 대해 각각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면 스님이 영담 스님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은 영담 스님의 직무대행 자격이 없음을 판결했다.

일면 스님은 판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동국의 백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일면의 사태로 인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느낀 계기였다. 낮은 자세와 공평정대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조속한 후임 총장 선임 방침과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함께 밝혔다. 15일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일면 스님은 차기 이사회 개최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구성원들의 입장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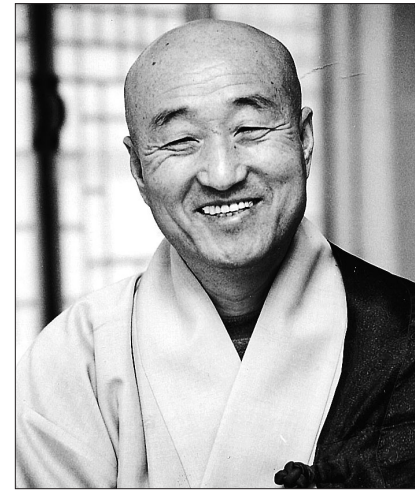
일면 스님 측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영담 스님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불법으로 보

일면 스님 15일 담화문 발표
“인수 진행... 학내 안정 최선”

영담 스님 측 “본안 소송 고려”
“논란·충돌없이 마무리 되길”

고 일면 스님의 이사장직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수과정을 완료하고 학교운영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담 스님 측은 지속적인 법적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5



일면 스님

일 영담스님 측은 법인사무처와 처장실 등에 대해 폐쇄하겠다는 뜻을 일면 스님 측에 전달했다. 가처분 결정 고지날부터 3일 후 명령위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법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도 진행 중이다.

영담 스님 측 법인사무처장 서리 도정 스님은 “가처분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

분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3일간 법률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 일면 스님 측은 영담 스님에게 15일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내용증명에는 법인사무처, 이사장 부속실에서 퇴거하고 이사장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과 법인 인감과 직인, 통장 반환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한편, 4월 15일 동국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종단 개입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면 스님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종단 측이 반대 여론을 묵살한 채 총장 선임을 강행할 것이기에 뜻과 의지를 모아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면 스님 측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학교 안정화를 위해 일면 스님이 3일간 기다리라고 당부해 법인사무처 등은 영담 스님 측을 배려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과 충돌없이 조속한 안정을 통해 다시금 동국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첫 시행

고시위, 4월 10일 개최

비구·비구니 스님 54명 응시

공통·전문분야 대해 면접 갈마 합격하면 종덕·현덕 법계 받아

“25년 스님 생활해도 떨려요
그간의 삶 돌아보는 계기될 것”

응시 스님 전원 합격 영예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4월 1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조계종 종단 지도자로서의 법계를 인정받기 위한 1급 승가고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4월 1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1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1급 승가고시에는 총 대상자 80명 중 54명(비구 28명, 비구니 26명)이 응시했으며,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해 결시없이 시험을 치렀다.

1급 승가고시는 종단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그만큼 응시 조건도 까다롭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비구)·혜덕(비구니) 법계를 수지한 법남 25년 이상의 스님으로 결계승고를 필하고 매

년 30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5년간 이수해야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종덕(비구)·현덕(비구니)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종단 주요 지도자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1급 고시는 필답 고사없이 그간의 수행이력과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 앞으로 계획을 묻는 면접 고사로 이뤄졌다. 면접은 비구, 비구니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8~10분 동안 갈마위원 5명이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면접 갈마를 대기하고 있던 스님들은 편

과정으로 승가고시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또한 25년을 치열하게 살았던 스님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1급 승가고시는 앞선 2, 3급 고시와 마찬가지로 필답과 논술 고시까지 방식이 확대된다. 승가고시의 강화를 통해 개개인 스님들의 자질 향상과 승단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승남 25년 이상의 스님들은 종단의 지도자로서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큼 1급 승가고시가 갖는 비중은 크다”면서 “올해는 처음 시행이라 갈마위원로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필답 고사 등도 병행해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승가고시는 승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실제 많은 스님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승가고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고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1급 승가고시는 응시한 스님 전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4월 14일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선승 스님(중앙승가대 교학처 교학국장)과 승탁 스님(법공총림 동화사)을 포함해 비구 스님 28명, 비구니 스님 26명 등 고시에 응시한 스님 54명 전원이 합격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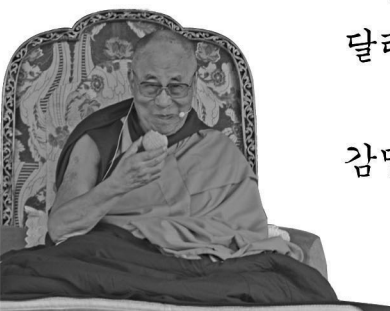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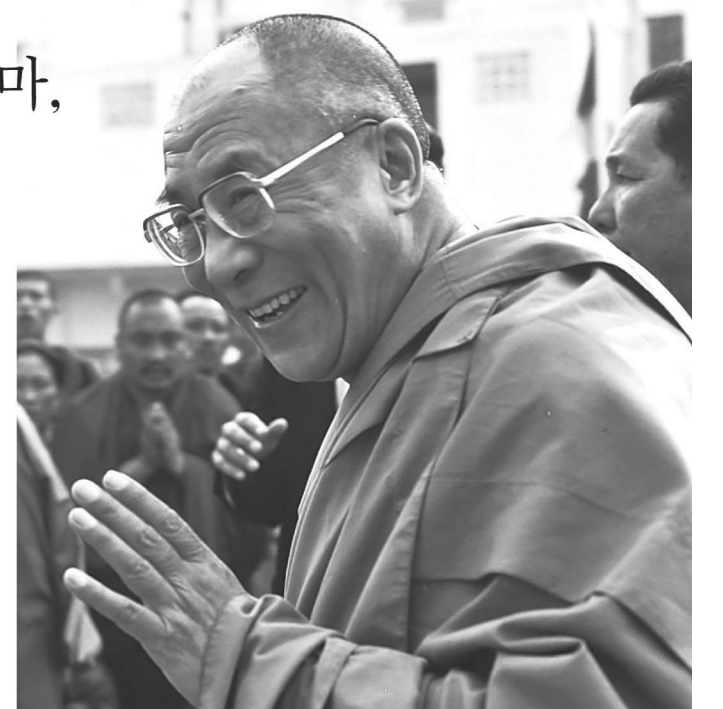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